

## 보건관리자는 누구인가?



**강성규**  
대한산업보건협회 부회장

낮은 시민사회에서는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기업 성공의 열쇠였지만,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면 품질만으로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선진 사회의 시민들은 누군가를 희생해서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안전보건이라고 한다. 안전은 노동자를 다치지 않게 하고, 보건은 노동자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환경은 사업주가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안에 일일이 관여해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자를 둔다.

###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사람들

산업사회 초기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주로 외부 환경의 유해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진폐증, 난청, 중독 등이다. 이때의 보건관리는 유해하다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이로 인한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해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고 매일 수행하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이 수단이고 보건관리가 보완한다.

산업사회가 발전하면 유해요인에 의한 건강 영향의 영역이 모호해진다. 건강이란 개인의 상태를 말하는데 작업환경과 개인 요인 사이의 영향력 구분이 어려워진다.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이다. 뇌심혈관질환의 발현이 작업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이 자연적으로 발현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어쨌든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고, 개인적인 위험요인도 줄이거나 억제해야 한다. 보건관리가 수단이다.

초창기의 산업보건은 질병의 원인을 구분하지 않았고,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루었다. 산업화 초기에는 유럽에서도 건강보험 같은 질병에 대한 사회보장수단이 없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작업 중 다치고, 환경에 의해 질병에 걸리고, 일반 질병으로 아팠다. 의사가 중심이 되어 노동자와 가족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담당했고 이들을 보건관리자라고 했다.

건강보험이 도입되고, 환경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면서 산업보건은 잠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으로 축소됐지만, 산업보건의 근간은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산업이 변하고 발전하면서 산업보건의 개념도 다시 원래의 위치로 환원되고 여러 전문분야를 포괄하게 됐다. 전통적인 산업보건의 핵심 요소뿐 아니라, 산업위생, 인간공학, 산업심리, 독성학, 역학공학 등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는 환경요인을 관리하고, 작업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질병의 특성과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일이다.

## 다양한 역량을 갖춰야 하는 사람들

산업보건의 확장이면서 이를 담당하는 보건관리자에게는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게 됐는데, 한 개인이 이를 모두 갖출 수 없으니 보건관리자는 집단적 개념이 됐다.

하지만 극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면 실질적 의미의 보건관리자를 갖춘 사업장은 없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간호사나 산업위생사 한 명을 보건관리자로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 건강 보호가 선진 수준에 이르지 못한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보건관리대행에서는 보건관리 정신을 일부 구현하고 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간호사, 산업위생사가 팀을 이루어 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업장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해 내야 한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 학습하고, 관련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노동자에게 필요한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